



즉시 배포용: 2020년 9월 2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이번 가을 코로나19 백신이 연방 승인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임상 자문 태스크 포스 및 백신 배포 접종 태스크 포스 조직 발표

임상 자문 태스크 포스는 연방 정부가 배포를 승인한 모든 백신을 검토할 수 있도록 최고의 의료 및 과학 전문가로 구성

백신 배포 접종 태스크 포스에 뉴욕주에서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임무 부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연방 정부 승인을 받은 모든 코로나19 백신을 검토하는 한편 바이러스 대응 효율성을 개선하고 뉴욕주에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 조언할 수 있도록 최고의 과학자, 의사, 보건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임상 자문 태스크 포스(Clinical Advisory Task Force)를 조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백신 배포 접종 태스크 포스(Vaccine Distribution and Implementation Task Force)를 설립하고 전국 최고의 코로나19 백신 운영 프로그램을 조직할 임무를 맡겼습니다. 백신 배포 접종 태스크 포스는 공중 보건, 면역, 정부 행정, 데이터 및 기타 백신 배포 및 운영과 연관이 있는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연방 정부의 대응을 비롯해 백악관(White House)와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분쟁 등은 백신의 정치화를 우려하게 만듭니다. 솔직히 저는 연방 정부의 의견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연방 정부의 의견에 근거하여 뉴욕 주민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지휘 하에 운영되는 독자적인 검토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며, 저는 이 위원회에 백신의 배포 및 접종 계획을 구상하고 시행 방법을 권고하도록 할 것입니다. 뉴욕의 코로나 대응은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되었으며, 우리는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서도 선도적 위치에 설 것입니다."

백신 배포 접종 태스크 포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백신 운영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 임상 지침만을 근거로 백신 접종자 우선 순위 결정
-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2회 분량의 백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 네트워크
- 자격을 갖춘 전문가 및 조직을 통한 백신 관리
- 예약 관리 및 프로그램 메트릭 추적을 위한 데이터 및 IT 인프라

-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 교육
- 필수 소모품 및 장비의 조달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